

들꽃편지 606

2019.8.23. 처서호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록펠러(D Rockefeller 1839)는 그의 책 <어려움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 아무리 어려워도 밝은 표정을 잃지 말라.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더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밝은 표정을 보고 투자를 한다.

2.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도망치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보고 투자를 한다.

3.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한다.

4. 격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들여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일들을 당겨온다.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

5.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봤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 자신감을 보고 투자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 누구라도 언제나 쉬운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번갈아가면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넘어져서 허우적거린다면 그 인생이 참 힘들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고 그 당당히 맞서 극복합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그에 걸맞는 큰 복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응원하며 최용우 올립니다.



이기론이면 부드러워라

물은 부드럽고 고분고분하다.
그 유순(柔順)함으로 단단하고 뻣뻣한 것들을 이긴다.
부드러운 교사가 단단한 학생들을 이긴다.
순한 교사가 거칠은 학급을 다룬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슬기로운 교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요함을 유지한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가 일지 않는다.
뉘그러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장 잘 돕는다.

또 다른 역설 하나
부드러움이 곧 강함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그리스도가 봄이 되셔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정한 평화...

사랑하는 민들레 형제, 자매 여러분,

절기가 어느새 처서(處暑, 8월23일)로 가고 있습니다. 처서는 땅에서 찬 기운이 일어나 더위가 끝나는 절기니까 우리는 시방 폭염 가운데 가을 속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었그제 귀뚜라미가 방을 들어왔습니다.

2005년 8월 15일은 광복 60돌입니다. 그리고 분단 60돌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날에 삼천리 강산과 우리 민족이 북위 38도로 금 그어 정확하게 분단되었으나 이제 우리는 광복 60돌 회갑과 함께 분단 60돌 회갑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분단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여러해 전에 망해버려 여러 나라로 갈라졌으니 남은 문제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삼천리 강산과 우리 민족의 분단의 책임이 미국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를 언제까지 남의 나라 탓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여러분,

시방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올해로 회갑이 된 삼천리 강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야말로 지상과제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원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엡2:14)

저 기가 막히는 Pax Romana 시절에 성인 바울로는 ‘Pax Christi’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서로 원수가 되어 갈렸던 사람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또 하느님과 화해시켜 이루신 그 평화입니다.



성인 바울로가 말씀한 그리스도의 평화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요14:2~31절)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처음부터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화(Pax Romana, Pax Americana)의 힘은 무력이고 재력이고 기술력이고 학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한순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기만 하면 그 무너짐이 대단히 심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평화의 진정한 힘은 ‘내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힘 있는 하늘의 하느님이 상대적인 힘밖에 없는 땅의 사람이 되신 것

입니다. 또 영원이 시간 안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평화의 진정한 힘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되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롭게 보니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는 뜻으로 깨닫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그 힘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는 거짓 평화입니다만 그리스도의 평화, 곧 하느님의 평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평화입니다. 그대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성인 바울로가 이렇게 권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공동번역)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롬12:18)

이 말씀이 참 고귀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야 그냥 의식을 바꿔 흐르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몸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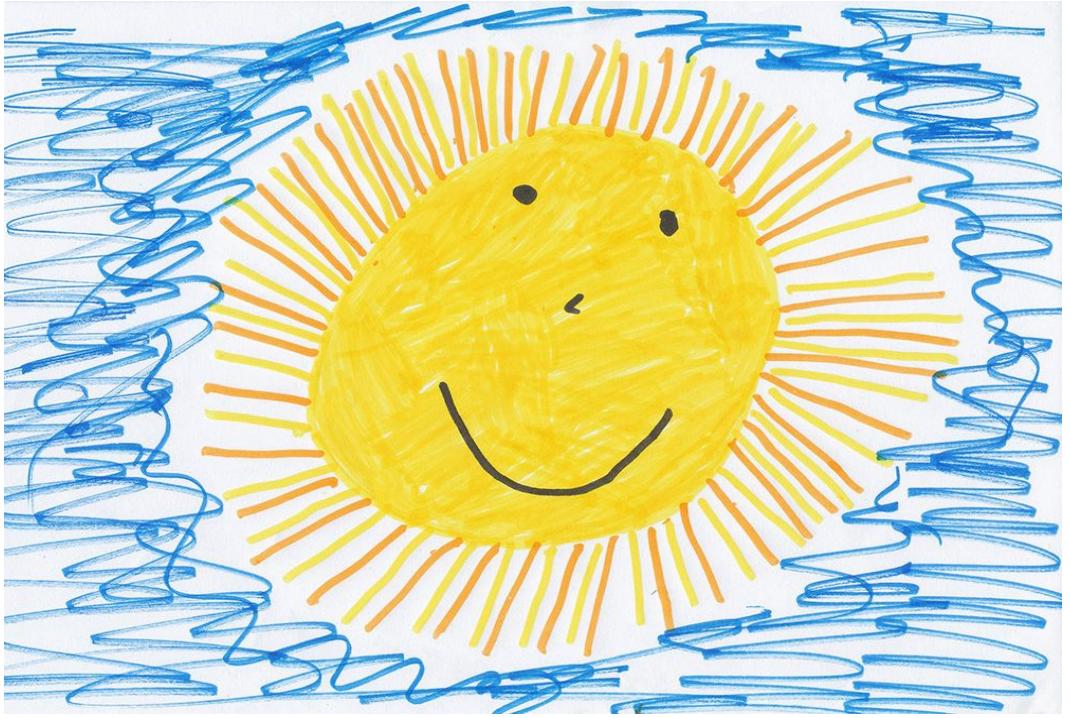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18:2).

하늘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어른에서 어린이를 흐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풍성한데서 무식한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서 없는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 돈이 더 있고 자유가 더 있다면, 그리고 북한에 돈이 없고 자유가 덜하다면 당연히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야 되겠죠.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가 본이 되셔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새롭게 배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산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흘러 그리스도의 평화, 하늘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갑시다.

우선 한 가지만 긴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건 무조건이지만 사람이 흐르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헤어져 있는 동안에 둘 사이에는 달라진 게 많습니다. 의식을 말할 것 없고 말도, 음식도, 교육방법도 달라진 게 많습니다. 본디 한 핏줄이요 한 형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또는 60년 세월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다름을 진지하게 인정하십시오. 다름을 공부 하십시오.

친구 사이에 사흘만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평화가 이미 받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흐르고 흐를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눅11:13)

이제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최완택 목사 (민들레교회)

이 글은 고 최완택 목사님이 27여년 간 오직 손수 필경으로 써서 제작하여 발송한 <민들레교회이야기> 2005.8.14 제586호에 실린 내용을 옮겼습니다. 벌써 15년 전 글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민들레교회이야기>의 글은 마음껏 써도 된다는 허락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야 글을 사용합니다. 고 최완택 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7:19)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현실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많고 열정적인 신자들도 많지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삶,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아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보다 게으를 때가 많으며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순종을 하려고 하면 더 짜증이 일어나고 인내하려고 하면 더 분노가 일어나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결단하고 시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다가 다시 좌절하고... 이런 패턴을 오래 반복해왔던 신자들은 나중에는 신앙적 열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좋은 때구나, 어디 얼마나 가는지 보자,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하는 식으로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 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 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실패가 시작되는 근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말씀은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내와 함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이 죄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린 아기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릴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죄의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이며 조금만 복음에 접한 사람이라면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끝난 것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일단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속죄 사역, 보혈의 사역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죄와 실패의 문제는 다 끝난 것일까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그것은 물론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시인하며 그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며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과 관계가 충분하다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삶에서 충분히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요?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 가운데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과 마지막 뿐 아니라 중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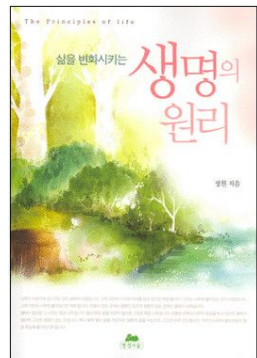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잠시 한번 영접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끝이 아니고 결혼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믿음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주님과 동거와 동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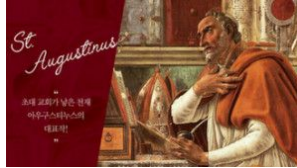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사망의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비결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랍고 엄청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글은 책을 구입하여 읽으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정원 지음 /영성의숲
433쪽 10800원



그릇된 도덕을 낳은 다신숭배



57. 키케로의 로마 국가론

로마공화국에 대해 시인 키케로는 로마가 ‘최악이자 가장 수치스런 상태’에 빠져 들었기 때문에 부패한 로마는 급격하게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 탓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인 키케로의 말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들어오기 전 시대에 한 말이기 때문이다.

58. 정말 신들은 로마를 버린걸까?

로마의 신들은 로마가 악습으로 파멸하지 않게 만드는데 아무런 관심도 영향력도 없었다. 그 많은 신전들에서, 그 많은 제관들에게, 그 숭한 종류의 희생 제사를 받으면서, 그토록 다양한 의례로, 장엄한 축제로, 그 수많은 경기 거행으로 숭배를 받았던 로마의 신들은 숭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이 숭배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오히려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망하게 하였다.

59.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악마들의 호의나 적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사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악마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전부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허락된 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60. 신들은 포악한 술라를 구했다

악마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술라의 행위 - 술라왕이 천인공로 할 인륜 파괴 행위를 하다가 멸망당한 것은 악마가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추잡한 짓을 선동한 것이다.

항당알기

아침 방송에서
살림살이에 지친 아내
발땀사지를 해주라기에
것 참, 좋은 생각이네
발땀사지 책을 사와
한 장 한 장 넘겨 보며
아내의 발을 조물락거립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만져보니
아내의 발은 참 따뜻하네요.
작고 부드럽고 깨끗한 발은
한 손 안에 꼭 들어옵니다.
그 느낌이 좋아서
맛사지 되게 못한다는 편지를 들어가면서도
아내의 발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다녔던 아내가
발을 내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딱딱한 부분이 무좀 덩어리래"
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 | |
갑자기 온 몸이 부르르르... 머리 팽!
입이 근질근질(?)

-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런 것도 모르고 발에
뽀뽀도 했어 엉엉 ...

©최용우 2002.5.29



re.

김정애 /푸하하하

정말 닭살! 마지막 구절에서 옷겨 죽을 뻔 했어요.

못 말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미안합니다. 행복하시소.

이금선 /꼭 '달려라 하니'의 남자 선생님 같아요. 구질구질한 날에 혼자 박장대소
했어요. 하하하 너무 시원하다~~

이신자 /ㅎㅎㅎ..... 전도사님 입에 이제 곧 무좀 생기겠다.ㅎㅎㅎ

최진미 / 부럽당~~

박은영 /약은 확실히 전달했겠지요?

그 날 함께 병원 갔던 날, 전도사님께서는 무좀병원 안 알렸어요?

전도사님, 입엔 난 무좀은 어느 파로 가야하나요?ㅎㅎㅎ

주부/ㅎㅎㅎ.... 닭살... 그러나 넘넘 좋은 삶의 모습들이예요..

섬김이 /사모님 절대로 전도사님과 뽀뽀하지 마세요.

사모님 입에도 무좀 오를라 ㅎㅎㅎ

햇볕같은 이야기



1. 철학과 신앙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사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354-430)은 타락과 방황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록」(confessions)을 씁니다. 고백록은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믿고 고백하는 ‘구속사(救贖史)’의 태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 된다’는 원리를 어거스틴이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던 19세때 키케로(Cicero)의 「철학의 권유」(Hortensius)를 읽다가 ‘지혜를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진리탐구를 위한 방향을 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였다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 누구보다도 더 깊은 윤리적, 지적 방향을 하였습니다.

철학을 하면 열등한 감각에 몰두하여 짐승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과 인간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고민하게 됩니다. 즉,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깊은 철학적 사고와 사유를 바탕으로 철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답을 신학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만약 철학이 없었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6437)

2. 철학과 동서

철학에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필로소피아(philosophia)’에서 유래되었는데 ‘앎,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밝을 철(哲: 밝다, 총명하다, 알다), 배울 학(學: 배우다, 학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인간을 탐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더럽고 악하더라... 인간의 탈을 쓰고 저질러지는 학살, 인종청소, 음란, 고문, 억압, 전쟁, 불평등 등등등... 인간의 악한 본성과 현상들 앞에 철학적 질문은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인간들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해 보려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엄청난 양의 사유들을 쏟아냈습니다. 도서관 ‘철학’ 코너에 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중국 최고의 작가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독교를 떠나 온갖 철학과 종교를 섭렵하다가 인생 말년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녘에 해가 떠오른다. 촛불을 꺼라.” 광명한 세상을 찾기 위해 그림자를 만지작거렸는데 진리 자체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광명을 비추는 태양이 존재하는데 무슨 촛불이 필요하냐는 반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의미를 규정하는 최종 근거는 하나님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죄의 문제를 해결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죄를 발견하고 좌절하게 할 뿐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6438)

3. 철학과 은혜

철학에는 죄의 성향을 죽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철학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죄의 기원과 속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이 구절은 ‘천사’가 죄의 원조임을 말합니다. ②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사14:13) 이 구절은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③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사14:14) 이 구절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음을 말합니다.

철학은 이러한 이야기를 황당하다고 생각할 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죄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타락한 사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고전1:21)그런 것입니다. 철학으로는 진리의 편린(片鱗)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죄 된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신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고, 비로소 그 은혜의 힘으로 죄의 성향을 죽이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공통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그분이 정하신 목표가 아닌 자기가 세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세상의 사조 및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공통적인 속성이다.” <죄의 철학/오스왈드 챔버스>

철학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6439)

4. 철학과 생명

철학에는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은 그것을 접하는 이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탁월한 통찰력이나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별떡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인생과 자연의 이치에 눈을 번쩍 뜨게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깨달음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성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깨달음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며 문학이나 영화나 예술도 똑같이 그

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철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간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복받치는 지혜의 열정으로 가슴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싸늘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나의 타오르는 열정 속에서도 한 가지가 나를 제약하고 있었으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그 열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로새서2:8)” 철학이 주지 못하는 ‘영적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영적 생명에는 뜨거운 피가 격동하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6440)

5. 철학과 사랑

철학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철학은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입니다.

①에로스(Eros)사랑 -플라톤은 사랑의 본질은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에로스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성적인 욕망을 떠올리겠지만, 플라톤은 사물에는 이데아라는 이상적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추구하려는 열망을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플라톤의 사랑)라고 합니다. 남녀간 에로스 사랑이 없으면 종족보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②스토르게(Storge)사랑 -혈족애(血族愛)를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고 호르몬보다도 강합니다. 우정이나 애정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매력이 사라지면 소멸되지만(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나 의리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그럼...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부모는 뭐여?)

③필리아(philía)사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논할 때 ‘필리아’(philia우애, 동료애, 우정)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정도 사랑이라고? 친구와 애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을 보면 우정도 사랑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윤리를 논하면서 필리아를 가장 중요한 윤리로 여겼습니다.

기독교에는 철학에서 말하지 않는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④아가페(Agape)사랑 -신(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신자의 신적 사랑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엄위에 대한 경험과 함께 경건의 근거가 되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6441)

당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직장을 잃고 집은 빚쟁이들에 의해 삼시간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자기를 구출하라>라는 책을 접하게 된 그는 그 책의 작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려고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작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하여 막 돌아서려는 순간 “비록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지만, 당신을 도와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는 사업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한쪽 벽에는 전신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가는 사업가를 거울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속의 사람이 바로 내가 소개해주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이분만 당신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당신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는 거울 속에 수염도 깎지 않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작가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사업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얼굴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날 거울에서 본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되찾는 것,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최용우 (6430)

□명랑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천곡동굴에서 (사진:최밝은 아이폰)

동해 가족여행

2019년 8월 8일 - 동해까지 300km를 넘게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짐을 꾸리고 네 식구 차에 탄 다음 아침8:30분 출발 하다. 남청주 나들목으로 들어가 고속도로를 탐. 문막휴게소를 들려 오줌 누고 대관령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강릉을 거쳐 동해에 도착하니 12시30분이라. 동해 여행 첫 번째 순서로 40년 전통의 '황정숙막국수' 집에서 막국수로 점심을 먹다.

숙소인 '목호등대펜션' 등대10호 방에 도착. 대충 정리하고 짐을 나와 '천곡황금박쥐동굴' 관람 후 '동쪽바다중앙시장'과 '목호수산물시장'에서 방황하다보니 해가 넘어가 '미성식당'에서 생선조림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추암출렁다리', '쫄대바위'의 환상적인 야간 풍경을 보고 숙소로 돌아오니 밤 10시였다.

사온 떡, 체리, 과자,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씻고 창 밖으로 밤바다를 보며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동해 가족여행 2일째

아침 6시에 일어나 숙소 주변이 ‘논골담길 벽화마을’이라 벽화사진, 풍경사진을 찍음. ‘상속자’라는 드라마에 은상(박신혜)의 고향 마을 장면을 찍은 집이 있었다. 벽화길은 총 네 개의 길이 있었는데 ‘등대오름길’ 하나 오르고 내렸을 뿐인데도 땀이 줄줄 흘러 나머지는 포기.



아이들을 깨워서 누룽지로 아침을 먹고 대충 정리를 하고 10시에 숙소체크 아웃. 차로 동해안 해변길을 타고 올라가기로 함. 가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해수욕장이나 들어가기로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다 패스.... 결국 정동진 도착하여 ‘모래시계 공원’과 ‘정동진해수욕장’에서 바다 사진을 찍음.

강릉의 ‘초당두부마을’에서 순두부전골정식으로 점심을 먹고 경포호수를 한 바퀴 뺑 돌아 강릉나들목으로 진입하여 다시 300km를 달려 세종에 도착하니 6시여서 청와삼대에서 족발세트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와 여행 마무리 하다.

이번 여행은 밝은이가 모든 계획을 짜고 숙소 예약, 진행까지 다 해서 나는 운전만 해 주면 되어 너무 편했다. 히힃!

선풍기 하나 그냥

그동안 사용하던 내 전용 앤틱선풍기가 소란만 요란할 뿐 바람은 거의 나오지 않아서 그냥 획 버리고 이-마트에서 미니 선풍기를 하나 샀다. 다른 기능은 없고 그냥 강, 약만 있다. 그나마 고개가 위 아래로 움직여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낮에는 책상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밤에는 내 발 밑에서 바람을 일으켜 모기를 날려버려 줄 선풍기이다. 친구여, 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 좀 하라구~ 그냥 그래도 여름 한 철이니까. 선풍기보다 에어컨의 전기료가 40배나 더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선풍기가 워낙 소식가라 전기를 쏘~금 먹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재미를 깔고 앉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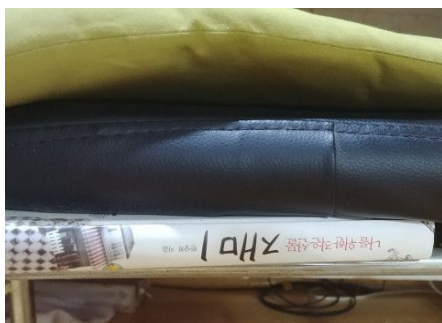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방학인데도 ‘보충 수업’한다고 학교에 가는 것도 짜증나고... 재미있는 일이 읊서.”

아내가 살짝 짜증을 낸다. 재미가 없다고? 그 재미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이고, 재미가 여기 있네. 당신이 재미를 깔고 앉아 있었고만.”

언제부터인가 자꾸 의자의 한쪽이 내려앉아 내 궁둥이가 틀어져 짝궁텅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무심코 책꽂이에서 표지가 뽀뽀한 책 한권을 뽑아 방석 밑에 피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재미’였다.

‘재미이론’은 재미를 ‘뇌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새롭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려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뇌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함. 어렵군. 뭘로 심심한 마누라를 재미있게 해 주어야 하나?



한번 밟아보고 싶다

문득 자동차 계기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차가 정말 22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없을 때 150까지는 밟아본 것 같은데 차가 비행기처럼 뽕뽕 떠서 막 하늘로 이륙하려고 해 얼른 속도를 줄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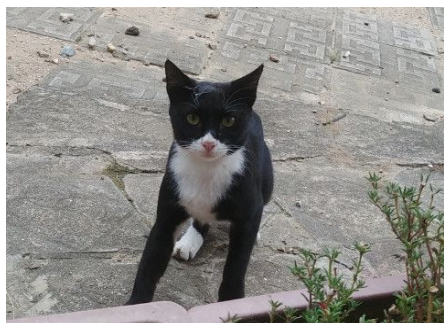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실제로 220km 속도 나온다고 한다. 와우~ 생각보다 차의 성능이 좋은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는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없어서 실제로 그만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차들이 자기 성능의 50%도 못 내고 다니는 셈이다.

새로 만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다. 공무원들의 대답은 아직 속도무제한으로 달리는 법이 없어서 안 된단다.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법을 만들자고 공무원들을 설득 했지만 무산되었다고 한다.



넵뒤라

처음 보는 검은고양이 네로가 나타나 삼색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마치 동네 총각이 동네 처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수작을 거는 것 같다. 안돼! 삼색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새끼를 낳다가는 죽어. 그냥 넵뒤라.



삼색이는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으르렁대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고양이와 개가 꼬리를 흔드는 의미는 완전 반대라더니 정말이다.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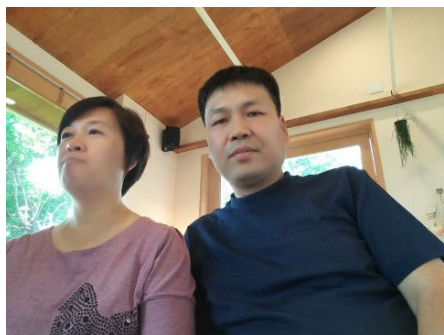
한 3일 정도 까만 고양이가 삼색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가끔 한 번씩 찹찹 거려 보더니 지금은 잠잠해졌다. 좋은이가 창 밖으로 보니 까만 고양이가 삼색이 앞에서 뒷다리를 들고 오줌을 한번 짹 갈기더니 체념의 표정을 지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 그 뒤로 검은 고양이가 안 보인다.

선택과 포기

“아유, 어디 싸고 맛있는 집 없나?”

더운 날씨에 불을 켜고 밥하기 싫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한 끼 해결하고 오자고 싸인을 보낸다. 나는 좋은 남편이라 이런 싸인엔 눈치가 빠르다.

보람동에 가기는 했는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 무얼 먹을지는 지금부터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한다.



1.싸고, 맛있는 집은 줄서서 기다리기에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2.싸고 맛있는 집은 바로 먹을 수 있어도 ‘맛’을 포기해야 한다.

3.비싸고 맛있는 집은 빨리 먹을 수 있으나 ‘돈’을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아무런 ‘포기’ 없이 값도 싸고, 맛도 있고, 시간도 아끼고 싶은 그런 곳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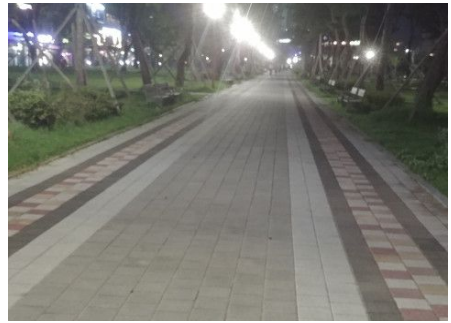
오늘도 ‘욕심’을 부리며 이곳저곳 방황하다 결국 늘 가던 ‘대독장’이라는 김치찌개 집으로 갔다.

걸으면서

낮에는 머리꼭지까지 열기가 올라갈 정도로 덥지만 밤에는 그나마 좀 시원하다. 좋은이가 ‘공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시 넘어 끝난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가 금강수변공원에서 헛돌헛돌 걸어 다니다가 시간 되면 좋은이를 차에 태우고 집에 온다.

엘지헬스라는 어플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하루에 해야 될 운동량을 정해준다. 나는 하루에 8000보 6.5km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헛돌헛돌 땀이 배도록 걸었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공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오늘은 예수님도 ‘길을 걷는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 그저 두 발로 뚝뚝뚝 헛돌헛돌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걸으셨을까?



극약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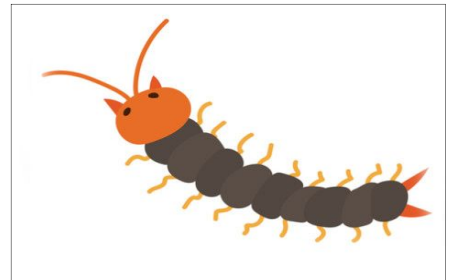
으아아아아아악!

갑자기 아내가 한 밤중에 일어나 불을 켜고 파리채를 휘 휘 휘두르며 칼싸움을 한다. 한 참 방바닥을 두들겨 패면서 “무..물렸어.. 나 물렸어..” 파리채 밑에는 산산히 부서지고 조각조각 분해된 지내가 있었다.

나는 화장지로 지네를 싸서 밖에 내다 버렸다. 아내의 오른쪽 종아리에 마치 주사 자국처럼 물린 자국이 나 있었다. 오래된 집이다보니 가끔 겹도 없이 벌레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전에 나도 지네에게 물린 적이 있다.

지네에게 물리면 소량의 독이 몸 안으로 투입되어 ‘극약처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독의 양이 많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지만, 아주 작은 양은 오히려 몸의 통증을 없애 주는 명약이 된다고 한다.

아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더니 돈 안들이고 ‘극약처방’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물린 부분이 마치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417회 비학산 일출봉196 2019.6.18

▲제418회 비학산 일출봉197 2019.7.13

▲제419회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2019.7.16.

이상호 목사님, 전화자 사모님과 함께 물 한계곡 주차장을 들머리로 민주지산(1241m)-석기봉(1200m)-삼도봉(1176m)-삼마골-주차장 까지 15km를 걸었다.

이상호 목사님은 최근에 <100명산>에 도전을 시작하셨다. 100명산 목록은 산림청, 불렉야크, 한국산하 세 가지가 있다. 36번째 산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한국산하100명산>목록을 따라 다니시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산 높이 순서를 따라 300산 목록을 만들어 놓고 1년에 약 50산씩 오르고 있는 중이다.

북산 최완택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에 <목산>을 하셨는데, 두어 번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걸음이 워낙 빨라 도저히 못 따라다닐 것 같아서 그냥 내 맘대로 속도를 조절하며 걷는 <듣산>을 만들었고 거의 15년째 매주 산을 오르고 있다.



▲제420회 구병산(보은)2019.7.28.

구병산(876m) 올랐다. 공주에서 이상호 목사님 부부가 동행 6명을 모시고 와 8시 30분에 금남면사무소에서 나를 태워 총 7명이 구병산 뒤쪽인 '구병리'에 도착하니 10시였다. 아홉개의 산봉우리가 마치 병풍 처럼 펼쳐져 있다 해서 구병산인데, 원래는 속리산휴게소 방면에서 올라 아홉봉우리를 다 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병풍 뒤로 돌아 3개의 봉우리만 올랐다.

왕복 5km밖에 안 되어서 뒷등산에 오르는 것처럼 편하게 산행을 했다. 내려와서 속리산 법주사 식당가의 '명석마당'에 들어가 산채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보은에 왔으니 보은의 관광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정이품송, 연꽃단지, 부인송, 선 병국생가, 삼년산성, 동학농민공원을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 집에 오니 6시였다.

▲제421회 비학산 일출봉198 2019.08.10.

▲제422회 대야산(930.7m) 2019.8.19.

속리산국립공원 북쪽인 경북 문경에 있는 대야산(930.7m)에 올랐다. 이상호 목사님 부부와 논산에서 오신 세분과 괴산에서 합류한 준목님 합 7명이 올랐다.

대야산은 용추계곡을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이 아름다운 여름 산이다. 바위와 물이 빚어낸 최고의 화강암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화강암을 하트 모양으로 깎은 것 같은 용추소는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찍은 장소라고 한다.



어제 무려 4천명이나 다녀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한가하게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었다. 보너스로 이 지역에 사는 준목님의 안내로 용추계곡 하류인 선유동의 숨은 비경까지 보고 올 수 있었다. 등산을 마치고 별바위 마을 한 식당에서 함께 먹은 매운탕과 닭도리탕도 별미였다.

나와 함께 몇 번 산행을 같이 한 분들이 "전도사님과 등산을 하면 참 편하고 쉬워요." 하고 말한다. 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뭐가 편하고 쉽다는 얘기일까? 400번 넘게 산행을 하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다보니 산행을 하는 노하우가 조금 생긴 것 같다.

우선 오늘 산행 거리와 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체 구간을 몇 개로 나누어서 몇 번을 쉰다는 계획까지 세운다. 동행자들에게 어느 지점까지 얼마의 거리인데 거기서 쉬자고 정확하게 다음 목적지의 좌표를 계속 찍어준다. 그렇다고 반드시 정한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산행을 하다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

처음부터 정상을 목표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벌써 지치고 만다. 그런데 구간 구간 목표를 정해서 작은 목표를 몇 번 달성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다. 아마도 그런 포트 지정을 잘 해주니 쉽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 처서(大暑)에 책을 말리고 싶다

처서(處暑)를 말 할 때 ‘땅에서는 가을이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푹푹 찌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시원해졌습니다. 더위를 몰아낸다는 뜻이 담긴 ‘처서’라는 절기의 이름을 정말 현실적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비가 내리면 곡식의 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해였는데 이제 비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요.

비가 올 때마다 저의 책방에서는 습기를 머금은 책들의 눅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책을 말리는 ‘포쇄’라는 것을 했다는데, 정말 책을 가지고 나가 햇볕에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② 원고 감사

이번호에도 귀한 원고를 허락해 주신 이현주 목사님, 정원 목사님, 고 최완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지면에 실어드리겠습니다.

들꽃편지는 최용우가 매월 이런 저런 지면에 쓰는 글 중에 약 20% 정도인 원고지 150에서 200매 정도를 골라 월간지 형태로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④ 도서출판 소식

〈천번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1044쪽 34600〉 5.22일 나왔습니다.

〈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300원〉 2019.3.18.일에 나왔습니다.

〈풍경일기 /400쪽 14300원〉 2019.1.22.일에 나왔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28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19.6월 재정결산

2019년 6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박종환 박주례 양희창 예사전 오창근

옥치오 이진우 이한규 전서월 정호숙 지경희 한주환

구글 성실교회 주님의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2분이 1,072,132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 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인터넷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19.8.22일 현재 644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4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2019년에는 2곳을 후원합니다.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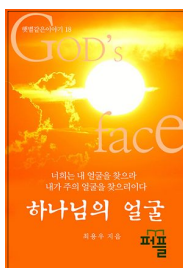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퍼플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퍼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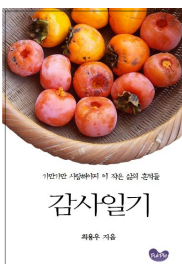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퍼플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퍼플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할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꾸니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개인문서선고지입니다.

*홈페이지 <http://cyw.pe.kr> cyw.kr cyw.co.kr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최용우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용포리 53-3)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06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